

#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 주요 날짜:

-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 9월 11일 성서모임
-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 9월 17일  
우리 사부 세라핌  
성 프란치스코  
거룩한 상흔 축일
- 9월 25일 총회

### 다음쪽:

형제회 연례피정  
한국 관구봉사자 방문  
이달의 작은 사람



## 신약성서 공부를 마치면서

송 향수 레지나, SF0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2, 디모 3.15-17)

형제회에서 시작한 성서공부가 어느덧 1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성바오로딸 수도회의 통신 성서공부를 먼저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회 회장님으로부터 몇 번인가 협박(?)을 받고 성서공부의 봉사자가 되었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생활화하여야 하는 프란치스코안으로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에, 회장님과 의논하여 우선 신약성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고, 교재는 성서 40 주간의 문제집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서공부라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 평가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 12.3) 봉사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는 신약만 끝내고 구약부터는 다른 분이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번 했지만 제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봉사자가 되기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였던가요? 멋 모르고 시작한 성서공부가 1년을 넘게 되었고, 드디어는 열심한 15 명의 형제들이 신약성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성서공부 숙제를 가

지고 가는 형제(비록 끝마치지 못했지만), 가족휴가를 떠나면서 우선 숙제 먼저 끝내서 제출하고 가는 형제, 매월 친교 준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형제, 손으로 글을 쓰기가 불편하여 그 많은 분량의 숙제를 타이프로 치는 형제, 너무나 일찍 숙제를 끝마쳐서 공부내용은 모두 잊어버리고 만날 날만 고대하며 기다린다는 형제, 그리고 너무도 진실한 묵상내용을 나누는 형제들을 통해서 혼자 해온 통신 성서공부와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되었고, 그안에서 또 다른 형제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봉사자로서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형제로서 구약성서까지 끝마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비록 봉사자의 달란트를 받지 못하였지만 매월의 문제지를 복사하는 정성만이라도 있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형제회의 성서공부는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돌리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에페 6.14-17) 신약공부를 마치며 깊이 간직하고 싶은 성서구절입니다.



종강의 기쁨

##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번째 주일  
오후 2시 30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  
San Diego, CA 92111

전화:  
(858) 274-0229

E-MAIL:  
mchusfo@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 2005 년 형제회 연례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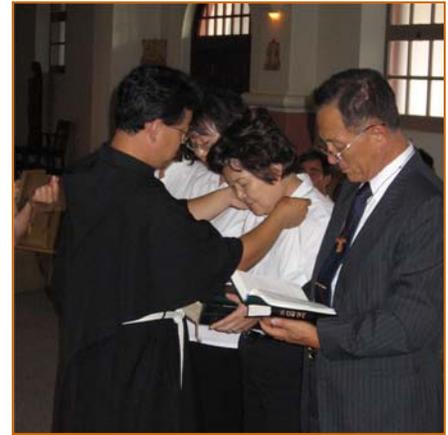
우리 마음의 양식과 휴식을 위해 작년부 터 시작된 형제회 연례행사로 2005 년 피정이 지난달 24 일 주일 Mission San Luis Rey 에서 있었습니다. 오전 8 시부 터 오후 5 시까지 짝 짜여진 일정이 형제 회 영적 보조자 작은 형제회의 Mark Schroeder 수사님의 오전 강의를 시작으 로 이번 피정을 위해 방문해 주신 끈뎀 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오 상환 요셉 신부님의 오후 강의, 입회식, 파견미사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Mark 수사님의 오전 강의 ‘재속 프란치 스코 회칙 제 4 조’를 통하여 자신과 주 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모든 관 계의 중심에 예수님의 계셔야함을 새삼 확인하였고, 침묵 중에 주님과와의 만남을 체험하고자 하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계속된 오후 강의 ‘재속 프 란치스칸은 누구인가?’를 통해 요셉 신 부님께서는 “논리적이기보단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프란치스칸”의 삶의 목표를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도정에서 성인

의 영성과 각 개인의 조화를 통한 재속 인의 삶”라고 정의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형제들(고 마 르티나, 김 베로니카, 옥 글라라, 옥 프 란치스코)을 맞는 입회식에 이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파견미사를 우렁찬 ‘우리는 형제로’로 마쳤습니다. 피정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첫 걸음



우리 모두 함께 모인 이 곳에...

##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봉사자 방문

성모 승천 대축일인 15 일 저녁, 엘리자벳을 찾으신 성모님처럼, 반가운 손님 두분이 저희 형제들을 찾아주셨습니다. 북남미 연수회 참석차 미국 을 방문중이신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봉사자 오 상선 바오로 신부님과 관 구비서 신 성길 니콜라오 신부님께서 형제들을 찾아 먼길을 오셨습니다. 바오로 신부님께서 형제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재속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세가지 속성인 ‘재속성’, ‘프란치스코성’, ‘형제회성’의 균형된 발전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 고 받는 참된 형제가 되라는 큰 짐(?)을 지워 주셨습니다. 멀리서 찾아 주 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동안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달의 작은 사람은 고 금숙 마르티나 자매님입니다. 동정 순교 성녀 마르티나(축일 1 월 30 일)가 본명성인인 자매님은 남편 고 옥석 마르티노 형제님과 93 년 9 월 지사 발 령으로 딸, 아들(은솔, 영건)과 함께 San Diego 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주 재원으로서 짧은 세월을 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허락하신 하느님 께 감사드리신답니다. 개신교 신자셨던 자매님은 87 년 첫 아이를 잃고 아이가 하느님 을 알 기회가 없어 천당에 가지 못한다는 교리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때, 레지오 단원 인 친구를 통해 가톨릭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San Diego 에서 성당을 찾아 94 년 부활 절에 온 가족이 영세를 받고 일주일후 혼배성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 이 친구의 죽음으로 방황할 때 부모로서 하느님께 매달리며 함께 기도하던 절박한 때에 주위 친구들이 속해있는 프란치스코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일년반의 양성공부를 하 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단순, 순종의 삶에 감명 받아 지난달 24 일 입회하셨습니다. 부족함 가운데 노력하는 자신에게 형제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이달의 작은 사람

